

“사회융합의 연등회 기능 강화돼야”

연등회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세미나서 한목소리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제는 현대사회에 연등회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그 기능을 확산시켜나갈 때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연등회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미나에서 연등회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조계종과 한국민속학회(회장 홍윤식)가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연등회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기념세미나에서 홍윤식 한국민속학회 회장은 사회융합의 연등회 기능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이날 ‘연등회 무형문화재 지정의 의의’ 기조발제에서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연등회에서는 나라의 번영과 개인의 행운을 기원하였는데 상하계층과 승속이 어울리도록 하는 점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연등회는 등공양과 불교전통 문화와 함께 전 국민, 더 나아가 세계인들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는 한국전통 문화”라며 “조선시대 국가적 행사에서 민간행사로 바뀐 연등회가 다시금 국가차원에서 관심받는 것은 사회갈등을 융합하는 연등회의 선기능이 주목받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2011년 연등회 연등축제 대동천마당에서 한마음으로 어우러진 세계인들이 환히 웃고 있다.



홍윤식 회장

홍 회장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축제의 문화가 없었다. 한국 대표축제로 연등회를 육성해야 한다”며 연등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홍 회장은 끝으로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참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불교계가 자비문화와 융화·소통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보다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우리 사회는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다”며 “오늘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연등회가 지닌 자비·화합의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등공양·자비 화합 정신살린 문화축제로 계층 차별없이 어울린 한국전통 불교문화 ‘부처님 오신날’ 지구촌 축제장으로 꾸꾸자

김 교수는 “관불식의 장소도 1928년부터 사찰을 벗어나 공공장소로 바뀌어 민간 축제로 변모했다. 수많은 변화에도 연등회의 본 성격은 ‘연등공양과 관등’으로 이는 국가기관이나 일본의 강제동원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일각의 일본 조파일족제인 ‘화제’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며 “1928년 일본인 화제와 연합되기 이전인 1924년 지방 사찰연등회에서 학생의 제등행렬이 행해졌으며, 1909년까지도 제등행렬의 기원을 소급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제 이후 최인화 인하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임창혁 중앙대 교수,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 전경욱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사회 발전의 저해요소에 대한 유용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 현대의 과제”라고 밝혔다.

제2발제 ‘근대 이후 연등회’ 발표에서 박진태 대구대 교수는 “연등회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본 조파일족제 영향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다.

박 교수는 “20세기에 들어서서 민간관등등이 위축되며 사찰의 ‘연등-시련-관불’이 사찰 밖으로 나와 대중과 소통하게 됐다”며 “전통적인 승려의 시련에 학생의 제등행렬이 결합되고, 이러한 전통이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연등회 근대사를 살폈다.

박 교수는 “관불식의 장소도 1928년부터 사찰을 벗어나 공공장소로 바뀌어 민간 축제로 변모했다. 수많은 변화에도 연등회의 본 성격은 ‘연등공양과 관등’으로 이는 국가기관이나 일본의 강제동원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일각의 일본 조파일족제인 ‘화제’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며 “1928년 일본인 화제와 연합되기 이전인 1924년 지방 사찰연등회에서 학생의 제등행렬이 행해졌으며, 1909년까지도 제등행렬의 기원을 소급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제 이후 최인화 인하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임창혁 중앙대 교수,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 전경욱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i.com

학술 · 문화재소식

학술원 우수도서에 불서 10종 선정

인문학 분야 8종... 한국학 분야 2종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김상주)이 선정한 2012년도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에 불교관련 학술서적 10종이 포함됐다.

선정목록에 따르면 인문학 분야는 △중론주석서 브라산나빠다 1~4 (찬드라키르티 저, 김정근 역, 푸른가람) △불교미술사상사론 (자현 스님 저, 도서출판 운주사) △선불교에 대한 철학적 명상 (데일라이트 저, 윤원철 역, 도서출판 지식과 교양) △승랑-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김성철 저, (주)지식산업사) △대해보각선사어록 1~6. (대해종고 저, 김태완 역, 소명출판) △보성론 (견해보살 저, 인성두

역, 소명출판) △추파집 추파수간 (추파홍유 저, 하혜정 역, 동국대출판부) △동아시아 불교교류사 연구 (조영록 저, 동국대출판부) 등 8종이다. 또 한국학 분야는 △고려의 불교와 상도 개경 (김창현 저, (주)신서원) △몽산법어언해 (장윤희 저, 채륜) 등 2종이다.

한편, 대한민국학술원이 선정한 2012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는 총 302종(인문학 85종, 사회과학 110종, 한국학 50종, 자연과학 57종)이며 선정된 도서들은 각각 1500만원 규모로 대학도서관에 보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 임종의례’ 학술대상 차지

박혜원 연구사, 제6회 국립중앙박물관 학술상

국립중앙박물관(회장 김정태)가 5월 8일 주최한 제6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고려시대 아미타내영도와 임종의례의 관련성 시론’ 논문을 발표한 박혜원 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대상(천마상, 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밖에 금관상(상금 500만원)에 ‘백제정립사시기림배치의 전개와 일본의 초기사원 역사’ 논문을 발표한 이병호 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과 ‘백제 은화관식의 제작방식에 대한 일검



박혜원 연구사

토 보존’ 논문을 발표한 최기은 공주박물관 별정7급 연구원을 선정했다. 은관상(상금 200만원)은 ‘선리 명문와 고찰’ 논문의 김규동 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삼재현 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문화재청·문화재청·문화재청’ 논문의 민길홍 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에게 돌아갔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수원 화성 규제완화 제동

수원 용주사(주지 정호) 등이 반대하는 수원 화성 일원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수원시가 지난 3월 요청한 화성 일원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요청을,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5월 9일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보완제출 결정으로 수원시 규제완화 요청 건은 4월 18일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수원시가 수원화성 일원의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이에 필요한 논리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특히 시물레이션 자료의 일부만 등고선으로 표시되는 등 자료전체가 부실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또 “세계문화유산이 지정된 곳 가운데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요구한 곳은 수원 밖에 없다”며 “세계문화

유산지구에서의 건축물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3월 수원화성 주변 건축물의 현상변경 허용기준(높이)을 현재 12개 구역 8~47m에서 9개 구역 9~80m로 완화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건의했다. 수원화성의 길이가 5.7km에 달해 구도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건축물 높이제한은 수원화성 500m 이내에서 적용되고 있다. 시는 상업지역은 40~80m, 주거지역은 4층(제1종 주거지역)과 18층(제2종 주거지역)까지 건축이 가능토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 용주사와 수원지역 환경·문화단체들은 2007년부터 수원 화성 일대에서 시작된 LH공사 용건릉 아파트 건축을 비롯한 재개발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성질 급한 리더들 달마를 따르라”

김보경 경북대 교수, 밝은사람들연구 워크샵서 주장 눈길

달마 대사는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에서 보원행(報怨行; 과보를 푸는 행), 수연행(隨緣行; 인연에 따르는 행), 무소구행(無所求行; 구하는 바가 없는 행), 칭법행(稱法行; 법에 계합된 행)을 통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설명했다. 달마 대사의 이입사행론을 행동치유법에 적용한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과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가 5월 11~12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자비원에서 공동개최한 불교상담워크숍에서는 김보경 경북대 명예교수가 이

입사행론을 상담심리학 관점에서 연구 개발한 ‘성질 급한 Type A CEO를 위한 달마 훈련’ 프로그램이 강의와 함께 시연됐다.

김 교수는 “전문직이나 관리직에서 흔히 발견되는 행동특성인 ‘Type A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동맥경화증과 같은 순환기계장애에 취약하다”며 치유방법으로 달마 스님의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을 수행할 것을 권했다.

김 교수가 구분한 ‘Type A 행동’은 강력한 성취욕에 의해 항상 시간과 경쟁하고 남을 믿지 못하고 쉽게 분노와 적대감을 나타내는 행동을 뜻한다.

김 교수는 “이입(理入)으로서의 벽관(壁觀)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Type A 행동에서 오게 되는 스트레스와 긴장 그리고 불안감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며 “아울러 집중력과 창의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정심’이라고 말했다. “억지로는 먹을 수도 없고, 억지로는 잠을 잘 수도 없다. 공부 하거나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조율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Type A 행동을 가진 리더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과 주의집중에 직결

달마 이입사행론 → 타입A 치유

1. 오리엔테이션 (스트레스 일시 활용)
2. 수식만 훈련 (고른숨쉬기)
3. 벽관훈련 (이완과 스트레스 통제)
4. 인지 재구조화 (내적대화로 생리반응 제어)
5. 평정심 통한 자기 치유

된 ‘정’과 ‘혜’라며 “일의 결과에 관심을 두기보다 과정 자체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불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인간의 운명을 인간의 손 안에 맡겨두고 있다는 점”이라며 “행동이론과 불교교리의 만남이 현대인이 처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학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6월 4일까지

◆개강일시 : 2012년 6월 5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도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점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탠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일반향)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경명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